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11. 23(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2021년 도정방향… ‘민생’ · ‘변화’ · ‘도약’** 이철우 도지사, 도의회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도정운영 철학과 방향 제시	정책기획관	
② **경북 북부권 생활체육의 중심 봉화국민체육센터 개관식 열려** 이 도지사 개관식 참석… 도민 건강증진 위해 도내 체육시설 확충 노력 볼링장 12레인, 수영장 6레인, 헬스장, 탁구장 등 갖춘 복합형 체육관	체육진흥과	
③ **주한 앙골라대사 경북도청 방문… 앙골라에 새마을 기적 전수해 달라** 이철우 도지사, 마르팅스 앙골라 대사와 새마을운동 보급 등 상호교류 논의	새마을봉사과	
④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영주 도시기본계획 등 3건 원안가결**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영주, 울진, 경주 기본관리계획 심의	도시계획과	
⑤ **경북도내, 코로나19 국내감염 4명 발생** 영주어르신 관련 2명, 안동 1명, 포항 1명 추가 확진자 발생	보건정책과	
⑥ **경북도, 재난안전 R&D 공모사업 선정으로 21억원 확보** AIoT 기반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행안부 공모 선정 인공지능 활용해 노후시설물 위험도 분석·평가·관리 시스템 개발	안전정책과	
⑦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첫 삽.. 배터리 재활용 산업 전초기지 구축**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 중앙부처 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한 후속사업의 거점 지역이 될 것	4차산업 기반과	
⑧ **포항영일만항 수출입 물동량 6년만 최고치 기록** 올 10월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 대비 68% 상승, 2014년 이후 최대	독도해양 정책과	
⑨ **글로컬(glocal)시대 경북도 공공외교의 방향을 찾는다** ‘2020 경상북도 공공외교 심포지엄’ 개최… 공공외교 인식 확산	외교통상과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사·군 평가 시상식’ 참석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3(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작 성 자	기획관	정 성 현	
			담 당	안성렬	주무관 심명섭
		연 락 처	054-880-2113		

2021년 도정방향… ‘민생’ · ‘변화’ · ‘도약’

- 이철우 도지사, 도의회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도정운영 철학과 방향 제시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3일 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도정운영의 철학과 방향을 밝혔다.

이 도지사는 “올 2020년은 참으로 격변(激變)의 한 해였지만, 우리 도민들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경북인 특유의 희생정신으로 이겨냈다” 며 함께 해준 도민들에게 먼저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확정지은 것은 우리 모두의 큰 자부심”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민생·변화·도약을 3대 핵심가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지원과, 일자리 창출, 미래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경북형 뉴딜’ 추진에 집중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통해 2,496억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등 모든 역량을 다해 총 10조6,548억원(일반회계 9조3,320억원, 특별회계 1조3,228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도지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세계 경제도 여전히 안개 속” 이라고 진단하면서, “내년에도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생’ 현장에 희망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위기의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고 밝혔다.

또 “경북의 산업을 언택트, 뉴노멀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로 옷을 입혀 ‘변화’ 시키고, 신공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으로 ‘도약’ 하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 고 강조했다.

✔ 민생 : 민생경제 살리기에 도정역량 집중

2021년 경북도에서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400억원을 조성하고, 언택트 시대에 발 맞춰 기업들의 온라인 판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愛꿈수당’ 을 처음으로 도입해 4,000여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면접수당과 취업성공수당, 근속수당 등을 지원하는 등 구직을 돕는다.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조기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지원과 공동체 회복,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신설되는 ‘감염병관리과’ 를 중심으로, 지역병원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노인복지시설에는 이동형 음압장비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경북 북부지역에 체외수정 시술기관이 부족해 난임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안동의료원에 난임센터를 건립·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 변화 : 4차산업혁명에 대응, 산업 · 문화 · 농업 등 변화 이끌 것

경북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전략도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도지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4차산업혁명의 시대, 신성장 산업 기반을 닦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포항·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기술창업 플랫폼 구축과 창업기업 후속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산단대개조 사업과 스마트 산단 사업을 통해 지역의 노후 산단을 업그레이드하고, 스마트 공장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임대산단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유치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신라왕경 특별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교실로 만들고, 임청각 복원사업도 조기에 구체화시켜 독립운동의 성지인 임청각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민족 정체성 확립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 도지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농업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첨단 ICT기술 융합을 통한 스마트팜 조성과 식용곤충 스마트생산 시스템 구축, 축분 에너지화 기반 구축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유입 정책의 대표모델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도시민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경북형 클라인 가르텐(작은 정원)을 시범 조성하는 등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도약 : 신도시 개발 + 신공항 + 통합으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것

미래 도약을 위한 발전 청사진도 조기에 가시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청 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변 연결 도로 8개 노선을 조기에 확충하고, 인재개발원과 농업기술원, 농업자원 관리원 등의 공공기관 이전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 도지사는 특히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 그 자체" 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용역과 국내외 전문가 참여 포럼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공항과 연계한 경북 발전의 큰 틀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또한, "21세기 바다시대, 동해안권 발전을 위해 헤드쿼터(Headquarter) 역할을 할 동부청사의 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등 분야별 발전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무엇보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되는데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는 경북형 뉴딜 추진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경북의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5G·AI 등의 디지털산업 시장을 선점하고, 다양한 분야에 AI와 빅데이터 접목을 강화해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문화유산 플랫폼, 비대면 관광마케팅 콘텐츠 등 언택트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내년에 개최되는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와 올해 불가피하게 연기된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 도민의 흩어진 에너지를 모으고, 경북의 저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

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모범 모델을 제시하고, 대구경북이 공존·번영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면서, “행정통합에 있어 무엇보다 시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도민의 소중한 뜻을 잘 새겨듣고 의회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일방이 아닌 함께하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지금 우리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중단 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 희망의 돛을 세우고 도민과 함께 담대한 항해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시정연설 원문 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3(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외교통상과		
		작 성 자	과 장	한 재 성	
			팀 장	오태헌	주무관 정용각
		연 락 처	054-880-2712		

경북도와 중국 허난성 자매 25주년 특별 화상회의 개최

- 도지사와 성장 간, 격상된 종합적 교류협력 체제 구축 MOU 체결 -

- 경상북도주간, 허나성주간 행사 개최, 다방면 실제적 교류체제 구축 합의 -

경상북도는 23일 도청 원융실에서 중국 허난성과 자매결연 체결 25주년 기념 특별 화상회의를 갖고 ‘경상북도-허난성 간 종합적 교류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화상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인홍 허난성장이 직접 참석해 한 단계 격상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해각서를 통해 양측은 매년 ‘경상북도주간행사’, ‘허난성주간행사’를 번갈아 주최하고, 문화·관광·경제 협력,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교류협력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경상북도와 허난성은 1995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무역사절단 파견, 경제무역박람회 개최, 상호 공무원 파견 근무, 국제예술교류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협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경북도는 허난성에 수술용 가운, 수술용 장갑, 손소독제 등 방역물자를 전달하며 따뜻한 위로를 보냈으며, 허난성 또한 경북이 코로나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3월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뜻을 담아 경상북도에 방호복과 마스크를 보내왔다.

이철우 도지사는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 확산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경북도와 허난성이 친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코로나 등으로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방외교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문화·관광·산업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자” 고 말했다.

한편,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증표로 경북도에서는 도자기를 허난성에서는 벼루를 선물로 준비해 서로 교환했다.

〈사진 회의후 송부〉

참고

경북도 - 中 허난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특별 화상회의 개최

추진배경

○ 道-허난성(河南省) 자매결연 체결('95.10.23) 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강화된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 쌍방향 정기적 교류주간을 제정하여 문화·관광·교육·통상·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기반 구축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1. 23(월) 16:00 ~

○ 장　　소 : 원융실(357호)

○ 주요참석 : 지사님, 인홍 하남성 성장 등

○ 주요내용

- 경북-허난성 주간 제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체결형식 : 화상회의를 통한 협약 체결(사전 합의한 안)
-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품 상호 전시 및 전달 *체결식 이후 우편으로 전달

※ 기념품

· (경북도) 백자(명장 심산 김종훈)에 초당 이무호 선생의 친필로 *시를 써 놓음
  - 내용 : 북송시대 문인 명도선생 정호(허난성 출신)의 시 "추일우성"
· (하남성) 징니연 벼루(하남성에서 생산되는 벼루(중국 4대 명벼루 중 하나)
  - 내용 : 경북도화 백일홍과 허난의 주센진 목판연화 새긴 특별제작 작품

허난성 인홍 성장 프로필



◇ 성　　명 : **인홍(尹弘)**, 저장성 호주시
◇ 생년월일 : 1963. 6월 (만58세)
◇ 학　　력 : 상하이공대(금속조직학), 상하이교통대(사회과학)
◇ 주요경력
○ '20.01 ~ 중국공산당 허난성위원회 부서기, 허난성 인민정부 성장 및 당조(黨組) 서기
○ '17.02 ~ 중국공산당 상하이시위원회 부서기
○ '12.05 ~ 중국공산당 상하이시위원회 상무위원
○ '08.02 ~ 상하이시정부 부비서장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3(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작 성 자	과 장	장 철 웅		
			팀 장	배덕환	주무관	심수용
		연 락 처	054-880-3234			

경북 북부권 생활체육의 중심 봉화국민체육센터 개관식 열려

- 이 도지사 개관식 참석... 도민 건강증진 위해 도내 체육시설 확충 노력 -

- 볼링장 12레인, 수영장 6레인, 헬스장, 탁구장 등 갖춘 복합형 체육관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3일 봉화읍 해저리 일원에 위치한 봉화복합스포츠단지에서 엄태항 봉화군수, 권영준 봉화군의회의장, 도의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봉화국민체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2016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봉화국민체육센터는 국비 33억 지방비 129억 등 총 162억원을 투입해, 2018년 첫 삽을 떠 연면적 4934㎡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5월에 준공됐다.

봉화국민체육센터는 볼링장 12레인을 비롯한 수영장 6레인, 실내체육관, 헬스장, 탁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북부권지역의 체육시설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봉화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북부권지역에서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커뮤니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만2천여 봉화군민들이 염원한 체육센터 건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활발한 이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경북도는 국민체육센터 공모에서 전국 57개소 중 7개소가 선정돼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도내

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봉화국민체육센터는 볼링장, 헬스장, 탁구장 등 3개 종목에 한해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전예약제로 시범 운영 중이며, 시범운영 후 체육시설과 운영시스템 등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 행사후 송부〉

참고

봉화 국민체육센터 개관식 개최

❖ 봉화국민체육센터는 2016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 5월 완공**
❖ 볼링, 수영장, 헬스장 등 **군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될 계획

행사개요

○ 일　　시 : 2020. 11. 23.(월) 14:00
○ 장　　소 : 복합스포츠단지 풋살장(봉화국민체육센터 맞은편 위치)
○ 참석인원 : 400명 정도(지사님, 군수, 군의회의장, 도의원 등)

〈 봉화국민체육센터 〉　　※ 규모 : 연면적 4,934㎡(지상2층, 지하1층)
◦ 위　　치 : 경북 봉화군 해저리 산4-7번지
◦ 주요시설 : 수영장(25m 6레인), 볼링장(12레인), 실내체육관, 헬스장, 탁구장
◦ 사 업 비 : 162억원(국민체육기금 33, 봉화군비 129)

세부계획

시간		내　　용	비 고
시간대별	소요		
13:30 ~ 14:00	30′	식전공연(지신밟기) 및 축하공연(색소폰)	
14:00 ~ 14:10	10′	▶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14:10 ~ 14:15	5′	▶ 공사관계자 감사패 수여	봉화군수
14:15 ~ 14:40	25′	▶ 개관사	〃
		▶ 축　사	지사님
		▶ 축　사	봉화군의장
		▶ 축　사	도의원
		▶ 축　사	봉화군체육회장
14:40 ~ 14:50	10′	기념식수	
14:50 ~ 15:00	10′	테이프 커팅	
15:00 ~		국민체육센터 관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3(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작성자	과 장	남 창 호		
			팀 장	이승택	담당자	황보경화
		연락처	054-880-2881			

주한 앙골라대사 경북도청 방문... 앙골라에 새마을 기적 전수해 달라

- 이철우 도지사, 마르팅스 앙골라 대사와 새마을운동 보급 등 상호교류 논의 -

에드가르 가스파르 마르팅스(Edgar Augusto Brandão Gaspar Martins) 주한 앙골라대사가 2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을 가지고, 새마을운동 보급, 지역 간 상호협력 강화 등 앙골라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에드가르 가스파르 마르팅스 주한 앙골라대사는 지난해 11월 14일 부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교류활동을 자제해오다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상북도를 방문했다.

이는 보니토 디오고(Bornito de Sousa Baltazar Diogo) 앙골라 부통령이 국토행정부 장관 시절인 2016년 10월 경상북도를 방문해 새마을운동 전수를 요청한 사실을 전해 듣고 재요청을 위해 방문했다.

마르팅스 주한 앙골라대사는 “앙골라가 아프리카 주요 원유생산국으로 석유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랜 내전의 영향으로 국민 대다수가 절대 빈곤층”이라며 자국 상황을 설명하고,

“70년 전 전쟁의 아픔을 겪은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기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것은 새마을 운동이 원동력이었다고 들었다”며, “앙골라에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의 기적을 전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한국 농기계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경상북도가 새마을 종주도로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로 알리고 있으며, 국가 간 관계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뒷받침하고 있다”라며,

“새마을정신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의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앙골라와 2010년부터 10년간 새마을연수를 중심으로 교류협력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날 만남을 통해 경상북도와 앙골라 간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갈 계획이다.

<사진별첨>

주한 앙골라 대사 지사님 면담

면담 계획

○ 일　　시 : 2020. 11. 23.(월) 10:00

○ 장　　소 : 지사님 접견실

○ 방 문 자 : 5명(주한 앙골라 대사 등)

○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 세계화 협의 및 경북도·앙골라 자매결연
- 양측의 관계강화 추진 등 상호협력방안 논의

주한 앙골라 대사

▸ 성　　명 : 에드가르 아우구수투 브랑당 가스파르 마르팅스

▸ 생년월일 : 1953. 11. 24.

▸ 학　　력 : 쿠바 하바나 대학교 국제관계학 학사
포르투갈 리스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 주요경력

- 2019. 5. 주한 앙골라 대사
- 2015 ~ 18년. 주캐나다 앙골라 대사
- 2010 ~ 15년. 앙골라 외교부 인사국장

▸ 수행원(2)

- 마누엘 킨군다(Manuel Kingunda) : 비서
- 한헌주 : 한-포르투칼어 통역사

▸ 동행인(2)

- 김신길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겸 아세아텍 회장
- 김성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수출추진본부장

시간 계획

시　간(분)		주 요 내 용	비 고
~ 09:55		도청 도착	
10:00 ~ 10:25	25′	지사님 면담	접견실
10:25 ~		기념촬영 및 환송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3(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작 성 자	과 장	김 규 율		
			팀 장	도영호	주무관	정성길
		연 락 처	054-880-3918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영주 도시기본계획 등 3건 원안가결

-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영주, 울진, 경주 기본·관리계획 심의 -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 등 3건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했다.

먼저, ‘2030년 영주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최상위 도시계획으로써, 영주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유·불문화와 융복합산업이 상생발전하는 중부내륙 중심도시 영주라는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지표를 설정했다.

기존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구목표를 15만명에서 11만3천명으로 계획해 현실적으로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해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2지역·8지구에서 1도심·3지역·7지구’로 생활권을 조정하고 도시기능 배분과 장기적 관점의 성장거점 전략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등을 적정하게 보완했다.

또 신·구도심과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주환경개선 및 교통인프라 확충 등 세부적인 상생발전계획과 목표인구 산정의 적정성 등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했다.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울진군 평해읍 일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1만45㎡, 1992년 5월 시설결정)이 올해 7월 1일부로 실효됨에 따라 기존 일반상업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됐다.

‘경주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변경’ 건은 경주시 황오동 등 도심지역 및 구정동 일원의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있는 획일화된 고도지구에 대해 역사문화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일부완화(15~25m→36m)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구역의 최고 높이와 고도지구를 일치(15m→12m) 조정하는 것으로, 경주만의 전통문화 경관보호 측면과 도시 활성화 측면 등을 두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원안가결 했다.

고도지구는 문화재주변 지역의 경관보호 목적으로 1975년도 최초 지정(국토교통부) 후, 일부변경이 있어왔으나 최고 높이 제한으로 노후 주택 및 오래된 아파트 재개발 등 개발제약에 따른 도심 공동화와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최상위계획으로 장래 지속적인 발전전략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상위계획간 연계와 조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도시여건에 적합한 성장기반 로드맵이 되어야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이번에 심의한 경주 문화재 주변 고도지구 변경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개발높이 제한으로 도시노후화와 문화재보호 측면 등 다양한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3(월)】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김 영 길		
			팀 장	이민자	주무관	손승민
		연 락 처	054-880-3788			

경북도내, 코로나19 국내감염 4명 발생

- 영주어르신 관련 2명, 안동 1명, 포항 1명 추가 확진자 발생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2일 도내 4명(영주2, 안동1, 포항1)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영주어르신 관련 추가 확진자는 2명으로, 21일 확진 된 영주확진자의 배우자와 지인이다. 경북도는 영주어르신 확진자 동선파악과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즉각대응팀을 파견했다.

영주시는 검사안내 문자 발송, 보건소 외부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 480명의 접촉자에 대한 검사, 확진자의 동선에 따른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누적 확진자 3명 : (11.21) 영주1 → (11.22) 영주+2

안동가족 성남방문 관련 추가 확진자는 18일 확진 판정받은 안동확진자의 접촉자로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 받았다.

※누적 확진자 6명 : (11.18) 안동3 → (11.19) 안동+1 → (11.21) 안동+1 → (11.22) 안동+1

포항직장인 구리자택방문 관련 추가 확진자는 20일 확진된 포항확진자의 접촉자로 포항시의 동선공개와 안내문자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 후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 2명 : (11. 20) 포항1 → (11. 22) 포항+1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일상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모임·행사를 자제하시고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진없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3(월)】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서 한 교	
			팀 장	전년무	담당자 황서경
		연 락 처	054-880-2313		

경북도, 재난안전 R&D 공모사업 선정으로 21억원 확보

- AIoT 기반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행안부 공모 선정 -
- 인공지능 활용해 노후시설물 위험도 분석·평가·관리 시스템 개발 -

경상북도가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으로 기획한 ‘AIoT(사물지능) 기반 3종 집합시설물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이 행정안전부 2021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21억원을 확보했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사업’은 지역별로 직면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 연구개발, 실증에 참여함으로써 재난·안전 현안을 해결하는 R&D지원 사업이다.

경북도가 제안한 ‘AIoT 기반 3종 집합시설물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노후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이 높고, 잦은 지진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경북의 특수성에 착안해 이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기획됐다.

이번 사업은 노후시설물에 부착된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와 영상정보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설물의 위험도를 분석·평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학계 및 연구계의 재난·안전 전문가들과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이후 현장 실증을 통해 휴대폰 앱을 이용한 양방향 정보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

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 협의체구성(안) : (학계·연구계)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 경운대 재난안전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업) ㈜KT, ㈜데이스텍, ㈜우노

플랫폼이 개발되면, 현재 현장점검-진단-분석 작업에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2~3일까지 줄여 신속하고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복점검이 필요 없어져 점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관리가 가능해 진다.

이묵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지진 등 대형재난에 따른 노후시설물 붕괴사고가 많아 이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공 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후 송부>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3(월)】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4차산업기반과			
		작 성 자	과 장	박 인 환		
			팀 장	홍인기	주무관	오혜림
		연 락 처	054-880-2476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첫 삽.. 배터리 재활용 산업 전초기지 구축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 -

- 중앙부처 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한 후속사업의 거점 지역이 될 것 -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23일 포항시 동해면 공당리 616번지 일원에 조성될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 울릉군),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장경식 경상북도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수거, 보관, 성능검사, 등급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센터로서, 지난해 7월 중기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포항시 동해면 공당리 일원에 조성된다.

올해 1월부터 총 사업비 107억(도비 27, 시 80)을 투입해 부지면적 8049㎡(2435평), 연면적 3504㎡(1062평) 규모로 배터리 보관동, 평가동, 사무동이 건설되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배터리 보관동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이력관리를 위한 입·출고 시스템을 구축해 등급분류 전·후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평가동에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 및 등급분류를 위한 장비가 구축돼, 이 장비들을 활용해 배터리의 잔존 가치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 등급을 나누어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사무동은 사업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기업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이차전지 산업의 전초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포항금속소재진흥원 강관기술센터 일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사업을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의 후속 정책으로 종합관리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주도권을 가져올 계획이다.

여기에 5400억 규모의 '안전신뢰기반 고성능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이차전지 소재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적되어, 종합관리센터는 경북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포항은 올해 7월 예타 통과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으로 철강산업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고,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선도지역으로 거듭났다"며.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소재-부품-재활용 산업간 연결로 경상북도 이차전지 벨류체인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후 송부>

참고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착공식」 행사 보고

❖「**경상북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기 道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중심기관이 될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착공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　　시)** 2020. 11. 23.(월) 10:30 ~ 11:15

○ **(장　　소)**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內(포항 동해면 공당리 616)

○ **(참석대상)** 국회의원, 중기부 단장, 경북도의원, 포항시장, 道 담당과장, 등 100여명

○ **(주요내용)** 이차전지 종합관리 센터* **경과보고, 기념시삽**

*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필요한 사용후 **배터리 수거, 보관, 성능검사, 등급분류,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종합센터**로, 향후 환경부 후속 연계 사업에도 활용할 예정

□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20 ~ 10:30	10'	▸ 식전 길놀이 행사(사물놀이 공연)	
10:30 ~ 10:40	10'	▸ 행사 안내 및 개식선언 ▸ 경과보고	사회자,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장
10:40 ~ 10:45	5'	▸ 기념사	포항시장
10:45 ~ 10:55	10'	▸ 축사 ·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김희천 중소벤쳐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 장경식 도의원(포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10:55 ~ 11:00	5'	▸ 착공퍼포먼스(시삽식) 및 기념촬영	VIP
11:00 ~ 11:15	15'	▸ 폐회 및 특구R&D장비 라운딩	

붙임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현황**

□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개요

○ 위　　치 :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포항 동해면 공당리 616)

○ 사업기간 : 20. 1. ~ 21. 6.(조기 준공)

○ 사 업 비 : 107억원(도 27, 시 80)

○ 규　　모 : 부지면적 8,049㎡(2,435평), 연면적 3,504㎡(1,062평)

○ 조 감 도



① 배터리 보관동 : 1,213㎡/ 지상 1층

- 배터리 입출고 시스템, 성능진단 자동화 시스템 등

② 사무동 : 1,451㎡/ 지상 3층

- 사무실, 임대공간, 전시실 등

○ 평가동 : 885㎡/ 지상 1층

- 대형 환경챔버, 진동시험기

○ 추진경과 및 계획

- '20. 02. 04. : 토지매입 및 매매계약 체결
- '20. 08. 03. :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기본설계확정
- '20. 11. 10. :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
- '21. 6월 중 : 준공 예정

□ 건립 기대효과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을 위한 성능·안정성·시험평가 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환경부 후속사업*의 인프라로 활용하여 배터리 해체 자동화 공정 설비 구축 및 폐배터리의 친환경처리를 위한 R&D 실시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21~'24년, 450억원)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3(월)】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독도해양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장 채 식		
			담 당	이후준	주무관	임창원
		연 락 처	054-880-7767			

포항영일만항 수출입 물동량 6년만 최고치 기록

- 올 10월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 대비 68% 상승, 2014년 이후 최대 -

올해 10월 포항영일만항의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1만4916TEU를 처리하면서 2014년 7월 이후 6년 3개월만에 월별 처리 물동량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68%나 증가했으며, 7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해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영일만항의 물동량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었으나,

자동차, 철강, 우드펠릿 등 영일만항의 주요 처리품목의 해상운송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러시아와 베트남 정기 항로가 다시 재개되면서 7월부터는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동해안 화력 발전소의 우드펠릿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입철도의 운송 빈도도 늘어나고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현재 포항영일만항 배후단지에 2개의 입주업체가 수출입 물류센터 및 냉동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5개의 업체가 추가로 운영을 개시할 계획으로 신규 물동량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포항영일만항의 가시적인 물동량 증가와 함께 긍정적 요인들이

이어지면서 향후 항만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김성학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입철도 개통, 항만배후단지 입주, 신규항로 개설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며, “앞으로도 이러한 물동량 증가와 항만운영 활성화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11. 23(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외교통상과			
		작 성 자	과 장	한 재 성		
			담 당	권세안	주무관	노병희
		연 락 처	054-880-2722			

글로컬(glocal)시대 경북도 공공외교의 방향을 찾는다

- ‘2020 경상북도 공공외교 심포지엄’ 개최... 공공외교 인식 확산 -

경상북도는 20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KF 공공외교역량강화대학 사업추진단(단장 계명대 이승근 교수)과 공동으로 ‘2020 경상북도 공공외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외교에 대한 도민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 국제협력 단체, 일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방지 차원에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대완 전 우즈베키스탄 대사의 ‘공공외교의 역사와 주요국 공공외교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구본우 전 외교부 문화외교국장의 ‘한국정부의 공공외교 정책 및 현황’, 이영호 전북국제교류센터장의 ‘지자체 공공외교의 중요성 및 한국 지자체의 공공외교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성로 안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방청록 한동대학교 교수,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한재성 경상북도 외교통상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지자체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경북도의 공공외교의 현 시점을 재조명하고 글로컬시대에 새로운 공공외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학계·지방정부·민간단체가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적극 모색하고 실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구현모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자체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경북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는 새마을세계화재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과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DGIEA),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회 등 탄탄한 공공외교의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공공외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공공외교’란 기존 정부 대 정부 간 협상 중심의 전통 외교와 달리 외국 대중(public)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라는 의미로, 다양한 매력 자산을 활용해 자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해 국익을 증진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사진별첨>

2020 경상북도 공공외교 심포지엄 개최

▸ KF(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지역의 21세기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확산하여 경상북도 공공외교를 한층 더 활성화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20.11.20.(금) 14:30~17:00

○ 장　　소 : 도청 다목적실(1F)

○ 참석대상(70명): 23개시군, NEAR, 새마을재단, DGIEA, 대학생, 道관련부서 등

○ 주　　최 : 한국국제교류재단

○ 주　　관 : 경상북도, 계명대KF 공공외교역량강화대학 추진사업단장

※ 단장: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 전임교수 이승근

○ 진행방법 : 패널 주제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Ⅱ 시간일정

시 간	소요	주요내용	비 고
14:30 ~15:00	30′	등　　록	
15:00 ~15:20	20′	내빈소개	사회:**이성로**(안동대교수)
		개 회 사	**이승근**(KF추진단장)
		환 영 사	**김호진**(일자리경제실장)
		축　　사	**구현모**(국제관계대사)
15:20 ~16:20	60′	공공외교의 역사와 주요국 공공외교 사례	**전대완**(前우즈베키스탄)
		한국정부의 공공외교 정책 및 현황	**구본우** (前외교부문화외교국장)
		지자체 공공외교의 중요성 및 한국 지자체의 공공외교 사례	**이영호** (전북국제교류센터장)
16:20 ~16:30	10′	회의장 정비	
16:30 ~17:40	70′	토　　의(지방공공외교 활성화) 및 질의응답	패널(**방청록** 한동대교수, **김옥채** NEAR사무총장, **한재성** 외교통상과장)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시·군 평가 시상식’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1. 24일(화) 오전 11시 경북도청에서 개최되는 ‘2020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시·군 평가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을 한다.